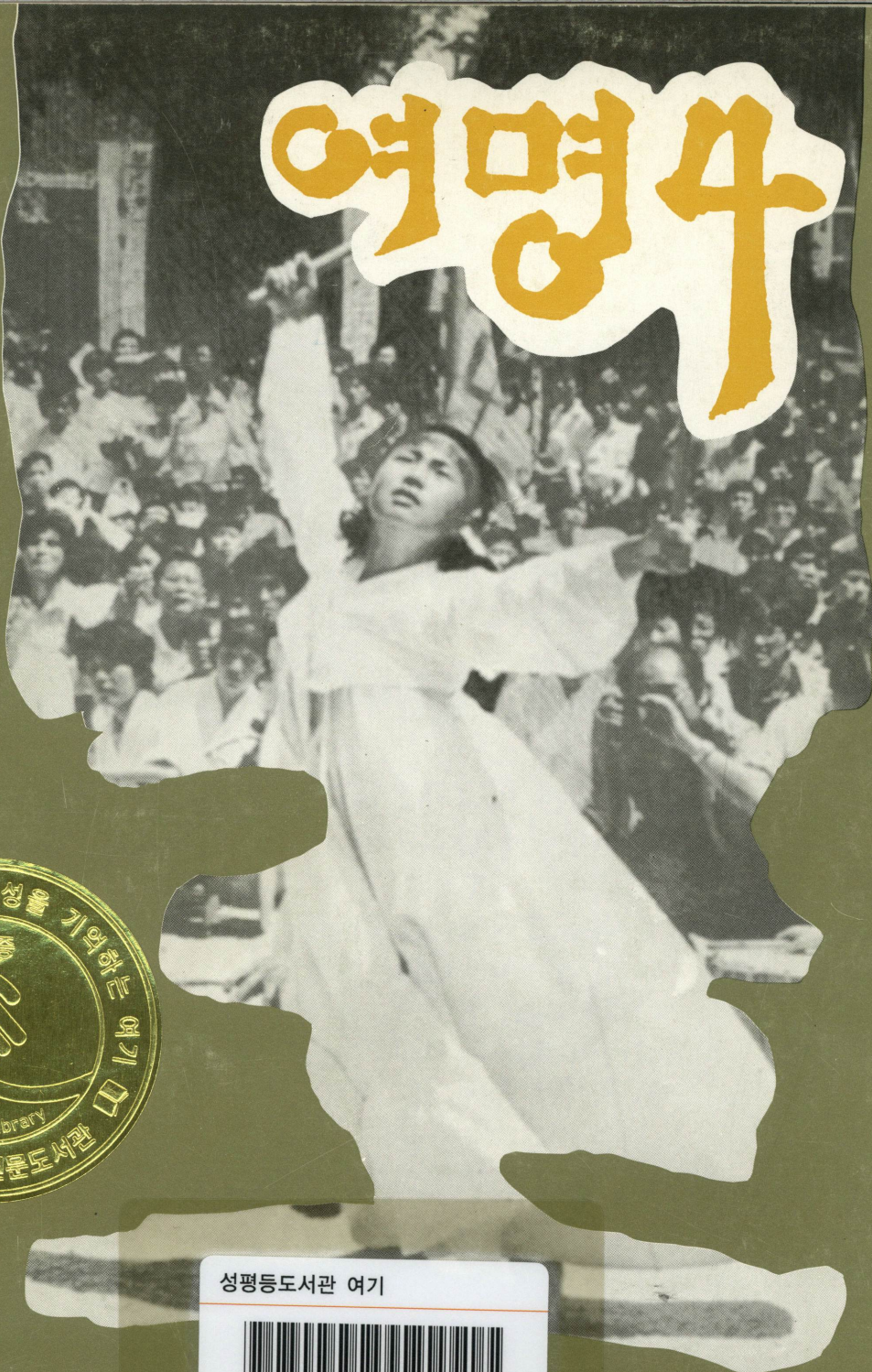


여명4



성평등도서관 여가



GL0001451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
3여

0014516

00

익대학교 . 여학생회 . 여명 편집부

일어서자 벗들아

지금 비록 땀땀이 서서 산다지만
식민지 조국에서 투쟁없이 선다는 것은
무릎꿇려 굴욕당하는 것이다.
지금 비록 두 눈 뜨고 앞을 볼 수 있다지만
식민지 조국에서 투쟁없이 두 눈 뜬다는 것은
머리채 잡힌 채 고개 쳐박혀 바닥만 보고 사는 것이다.

일어서자 벗들아
식민지에서 안주는 비겁일 뿐이다.
식민지에서 평안은 배신일 뿐이다.
일어나 달리자.
달려 맞는 바람으로 목은 절망을 날려버리자
어디서라도 잡은 손 놓치지 말고
어디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 속도로 달리자.
나아갈 길은 한 방향, 한 눈 팔지 말고
사수는 불가능하다. 돌파다.
봉쇄벽의 약한 부분을 뚫는다.
이제 시간이 임박했다. 각오를 하자.
소리 높여 각오의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그건 적들의 긴장만을 불러일으킬 뿐.
동지의 어깨를 굳게 잡고 탈출투쟁을 결의하자
어쩌면 잡힐지도 모른다.
어쩌면 큰 부상을 당할지도 모른다.